

로마서 개관

1. 개요

로마서(Romans)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 가장 체계적이며,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교리적으로 선포한 편지입니다. 이방 세계의 수도인 로마 교회에 보내진 이 서신은 복음을 중심으로 한 죄, 구원, 성화, 예정, 교회, 윤리 등 기독교 신학의 핵심 주제를 포괄합니다.

2. 저작 연대

- 일반적으로 AD 56-57 년경
 - 바울이 고린도에서 3 차 선교 여행 중에 체류하며 기록하였고, 뢰뵤(롬 16:1-2)를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-

3. 저자

- 사도 바울(Paul)
 -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,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자신의 사역적 정체성과 복음을 소개하고자 함.
-

4. 기록 목적

- 로마 교회에 복음의 핵심 진리를 명확히 가르치고
-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간의 복음 안에서의 연합을 도모하고
- 서바나(스페인)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로마 교회의 협력을 요청하며
- 기독교 복음이 율법주의, 혈통주의, 도덕주의를 넘는 하나님의 의임을 변증

5. 단락 구분

구분	내용
1-3장	인간의 죄와 정죄 -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 아래 있음
4-5장	믿음으로 의롭다 함 - 아브라함의 예, 그리스도의 순종
6-8장	성화와 새 생명 -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, 성령의 내주
9-11장	이스라엘과 구속사 -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, 이방인의 접붙임
12-15장	그리스도인의 삶 - 공동체 윤리, 양심, 사랑, 약한 자에 대한 배려
16장	인사와 권면 - 동역자 소개, 마지막 축도

- 전체적으로 교리(1-11 장)와 실천 윤리(12-16 장)의 구조로 나뉩니다.
 - 중심은 “하나님의 의”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음입니다.
-

6. 중심 메시지

“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...” (1:17)

“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.” (합 2:4 인용)

로마서는 선포합니다: “모든 사람이 죄인이고,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, 이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. 하나님은 자비하시며, 그분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.”

7. 신학적 이슈

(1) 하나님의 의 (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) - 디카이오쉬네 떼우

-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구속의 길, 곧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칭의가 강조됩니다.

(2) 원죄와 아담-그리스도 대조

- “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...” (5:12) → 아담과 예수의 대조는 언약신학의 핵심 구조를 이룹니다.

(3) 예정과 선택

- 9-11 장은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며, 개혁주의 교리의 정점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.

(4) 율법과 은혜

-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며, 구원은 오직 은혜로, 믿음으로 주어짐을 강조

(5) 성령과 성화

- 8 장은 성령론과 신자의 확신을 다루며, 죄와 죽음에서의 해방, 양자됨, 영광의 소망을 노래합니다.

8.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로마서 해석

(1) 칭의 - 오직 믿음, 오직 은혜

- 로마서는 루터와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고, 개혁주의의 ‘이신칭의’ 교리를 가장 선명하게 선포합니다.

(2) 언약적 신학

-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, 아브라함 언약의 실현(4 장)은 언약신학의 구속사적 구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.

(3) 예정론과 하나님의 주권

- 9-11 장은 **이방인의 구원, 이스라엘의 회복, 택하심과 강박하게 하심** 등 주권적 섭리의 신비를 개혁주의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게 합니다.

(4) 교회론과 실천 윤리

- 12-15 장은 칭의와 예정이라는 고등 교리에서 **구체적인 삶의 거룩함, 사랑, 순종, 공동체의 섬김**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 → 개혁주의의 “교리와 실천의 균형”을 잘 보여줍니다.